

# 보도자료

이제는 **경제의 시간** |



보도일시	2025.7.6.(일) 배포 즉시		사진	o	자료	o	매수	3
담당부서	디지털혁신과 (디지털혁신정책팀)	과 장	배영상 (031-8008-5330)					
		팀 장	김진욱 (031-8008-5331)					
		담당자	윤준기 (031-8008-5334)					

##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추천한 경기도 스타트업 2곳 세계경제포럼 ‘기술 선구자 스타트업’에 선정 - 경기도, 세계경제포럼과 함께 국가대표 스타트업 육성 추진

-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경기도 스타트업 2곳. 올해의 100대 ‘기술 선도 스타트업 (Technology Pioneers)’에 선정
  -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추천으로 하계 다보스 포럼 참가. 세계적인 스타트업과 협업 가능해져. 추후 글로벌 기업 성장 기대
-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올해 한국 스타트업 전용 혁신가 커뮤니티 프로그램(‘가칭)Korea Frontiers’) 시작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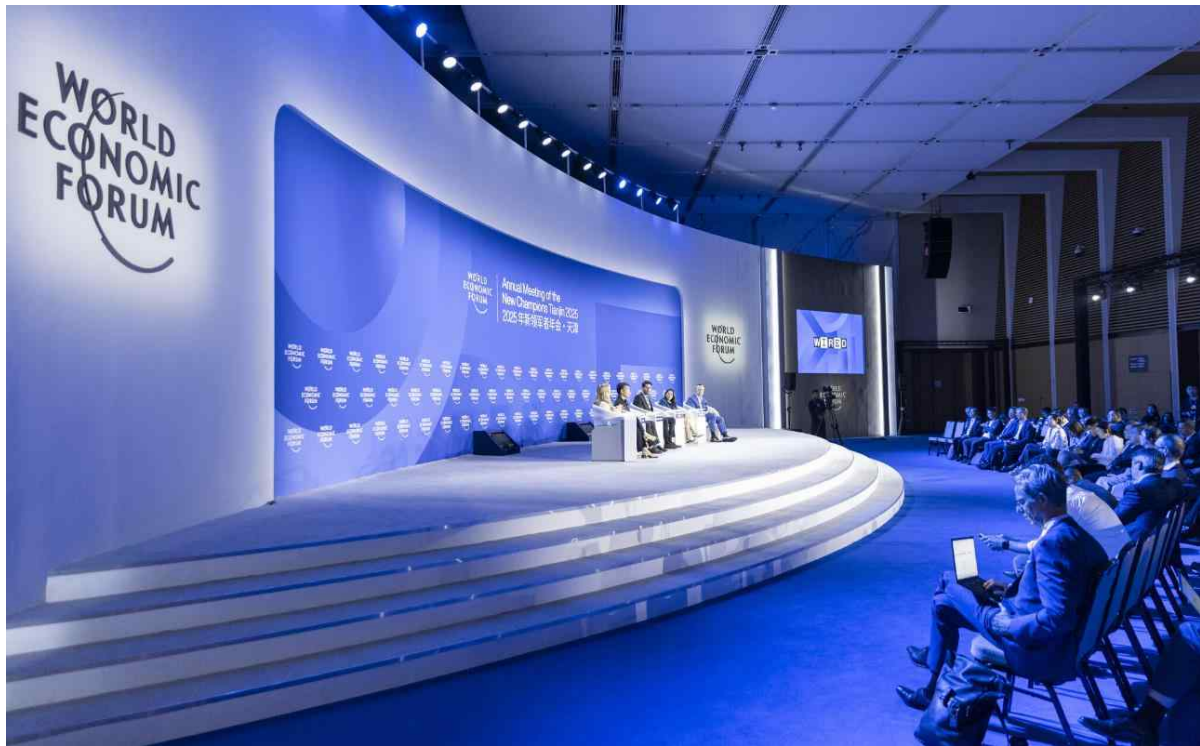
구글, 페이팔, 에어비앤비, 트위터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믿고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산업을 혁신해 온 기술 기업이라는 점 외에도 이들은 모두 세계경제포럼의 ‘기술 선구자 스타트업(Technology Pioneers)’ 프로그램 출신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중국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도내 기업 두 곳이 ‘기술 선구자 스타트업(Technology Pioneers)’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하계 다보스’로 불리며 매년 6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 ‘뉴 챔피언 연례총회(Annual Meeting of the New Champions, AMNC)’에서는 매년 전세계에서 100개의 유망스타트업을 테크놀러지 파이어니어(Technology Pioneers)로 선정하고 발표한다.

올해 선정된 28개국 100개 스타트업에는 고급 로봇 공학, 맞춤형 우주 발사 서비스, 마이크로 원자로 및 접근하기 쉬운 양자 컴퓨팅 애플리케이션 등이 포함됐다.



한국에서는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안내를 받아 경기도 스타트업들이 지원했고, 로보콘(오산), 하이리움산업(평택) 등 경기도 소재 우수 스타트업 두 곳이 선정됐다. 그 외 한국 기업으로는 부산 소재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가 이름을 올렸다.

스마트 팩토리 로봇 기업 로보콘(대표 반창완)은 자사 로봇 자동화 솔루션인 아론(ARON)을 싱가포르·이탈리아 등 해외에 수출 중이다. 또한 국내 최초 철근 가공 스마트팩토리 기업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프로젝트 진출도 추진 중이다.

하이리움산업(대표 김서영)은 액화수소 저장·운반 초저온 탱크 등 수소 생태계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수소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두 기업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추천으로 경기도 대표단과 함께 하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혁신가 커뮤니티의 일원이 됐다. 앞으로 2년간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지원을 받게 되며 세계경제포럼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에도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됐다.

아울러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성사업의

체계 종합 및 위성 제작회사로 선정돼 향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 ■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올해 스타트업 전용 혁신가 커뮤니티 개발 예정

한편,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이 협력해 올해 초 판교에 설립한 경기도 4차 산업혁명센터는 개별 국가 대상으로는 최초로 세계경제포럼과 함께 한국 스타트업 전용 혁신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가칭)코리아 프런티어(Korea Frontiers)’라는 이름으로 올해 중 선보일 이 프로그램은 한국 내 선도적 스타트업 20~30개를 매년 선정해 세계경제포럼 행사에 참여하는 한편,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자체 추진하는 각종 커뮤니티 사업에도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세계경제포럼과 협력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일회성 자금지원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국내 선도적 스타트업을 발굴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세계 스타트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센터는 초기 스타트업을 위해 매월 임직원 대상 AI 실무 활용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 인력 대비 신청자 수가 약 10배에 달하는 등 스타트업들의 관심과 호응이 크다.

경기도가 한국 최초로 설립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경기도의회 지원 받아 경기도 예산으로 설립했지만, 경기도만을 위한 센터가 아니라 AI와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한국 전체의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 약 1천 명의 우수 인력이 만들고 운영하는 최고급 정보·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 등의 글로벌 이슈 분석 자료와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 센터 정보 허브(koreago.net)에 게재하고 있으며, 그 중 선정한 주요 이슈와 정보를 매주 1~3회 뉴스레터 형식으로 발송하고 있다. 뉴스레터는 센터 누리집에서 전자우편만 등록하면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 Strategic Intelligence

세계경제포럼이 250개 이상의 주제영역 별로 세계 유수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들과 협업하여 매일매일 엄선한 글로벌 최고급 정보 허브

#### Strategic Intelligence

Explore and monitor the issues and forces driving transformational change across economies, industries, and global issues.

Discover more →

STRATEGIC INTELLIGENCE 이용 안내

## 뉴스레터

주 1회~3회 뉴스레터를 무료로 받으세요.

글로벌 최신 정보와 최고급 분석 자료

Email

SUBSCRIBE

세계경제포럼 스토리 보기

아울러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과 전세계 20여개 4차산업혁명센터들과 글로벌 연결 및 협업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

배영상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AI와 4차산업혁명의 전개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영향력이 커서 향후 5년, 10년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100년 뒤 우리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최고급 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경기도는 물론 전국의 기업,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연구기관, 대학 등도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전 세계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리더들이 모여 세계 경제와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비영리 민간회의다.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연차총회(‘다보스 포럼’)를 개최하고 있다.



## <참고자료>

### ○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소개

-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이 함께 '25년 1월 국내 최초로 4차산업혁명센터를 판교에 설립하고, 운영 중
- 세계경제포럼은 1971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로서 세계 경제와 산업, 첨단기술 동향, 기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세계 최고의 씽크 탱크이자 커뮤니티 및 네트워킹 운영 기구. 매년 1월 세계 각국의 정상, 장관, 국제기구 수장, 글로벌 기업 및 유니콘 기업 최고 경영자 등 약 3,000명이 스위스 다보스에 모여 세계적 현안들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다보스 포럼” 개최로 유명. 아울러 매년 6월, 1,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뉴 챔피언 연례총회(일명 ‘하계 다보스’)”를 매년 중국에서 개최하는 등 세계적 지도자 및 혁신가들간 다양한 교류 활동 운영 중
- 4차산업혁명센터(Cent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C4IR)는 세계 경제포럼이 각국과 협력하여 설립한 다중 이해관계자 협업을 위한 기구. 공공 및 민간 부문을 하나로 모아 사회에 대한 기술적 혜택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위험을 최소화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을 탐구하고 이의 책임감 있는 채택 및 적용과 전세계 센터 간 협업 추진
- 전세계 4차산업혁명센터 네트워크 : 201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4차산업혁명센터를 처음 설립한 이후, 현재 전세계에 20여개 센터가 운영 중. 특히, 작년부터 올해 까지 한국(경기도)를 비롯하여, 독일(베를린), 프랑스(파리), 영국(런던) 등 유럽 Big 3 국가 포함 10개의 센터가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예정. 이러한 각국의 4차 산업혁명센터 설립 러시는 각국의 AI 및 4차산업혁명 총력 대응과 국가 간 협업 모색의 방증
- 한국(경기도) 4차산업협력센터는 ① 최첨단 기술/산업/경제 정보 허브, ② 글로벌 연결 및 네트워킹 창구, ③ 혁신가 커뮤니티 조성 역할 수행 중. 한국 센터의 중점 분야(테마)는 AI 기반 ① 스타트업, ② 첨단 제조, ③ 기후변화 대응. 특히 스타트업 육성은 전세계 센터 중 한국 센터가 유일하게 테마로 선정한 항목으로서 ‘스타트업 천국’을 지향하는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의 의지가 반영되었으며, 세계경제포럼도 주목